

대행 스님

내 우물 안만 보지 말고 바다를 보라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했지만 가장 돕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진화되고 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인간이 돼서도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내 부모고 어떤 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며, 어떤 것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어떤 것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모두를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내 한도량으로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또는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佛教)가 어떠한 것인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교(教)란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또 물리가 터져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여건이 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진리인 것이지 어디 한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삼라만상 자체, 만물만생이 전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인간도 공기 주머니 속에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고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그 공기 주머니가 버스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네 걸상 내 걸상 하고 싸우고, 네 걸상이 옳으니 내 걸상이 옳으니 하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 깎은 사람이나 목탁 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만물이 다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새 한 마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볼 때에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광대한 진리, 불교라는 그 언어 없는 언어를 성실히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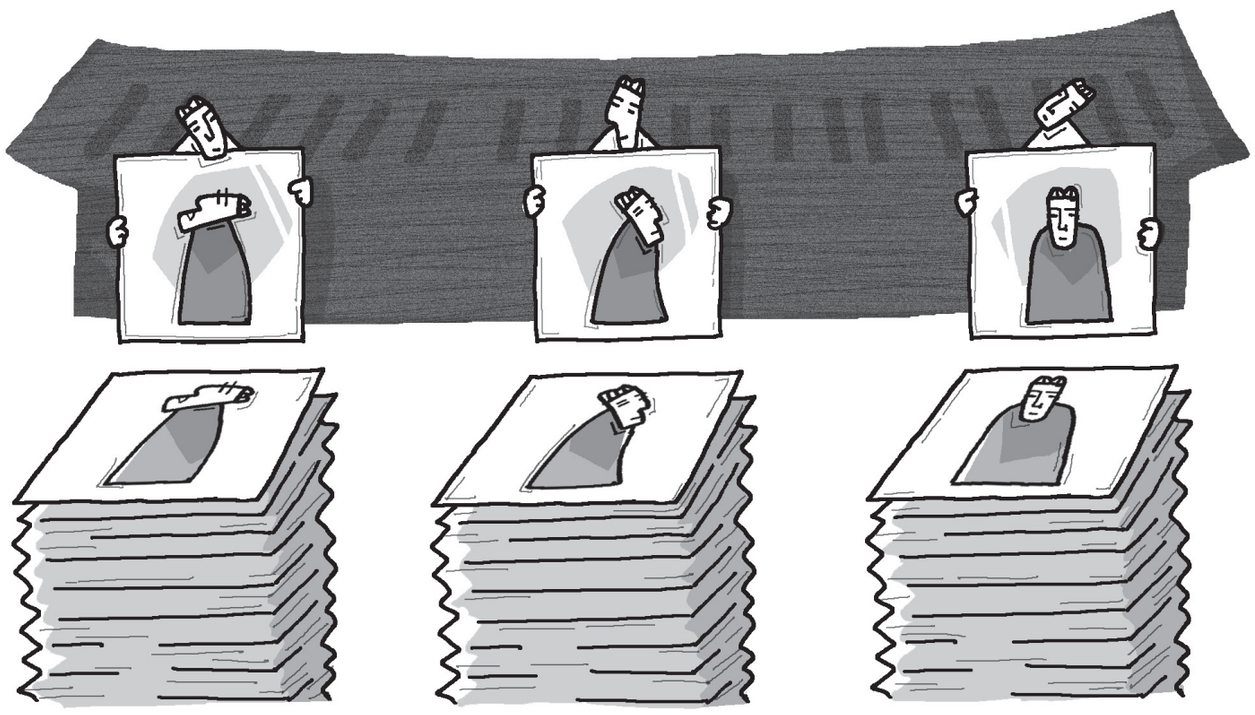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났다면 우리가 바로 '불(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인데 '나'는 버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항상 이름과 형상에만 매달려서 모두 밖으로 찾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보기는 좋고 멋은 있을지언정 참자기는 발견을 못 할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돼서 형성됐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몸이라고요. 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속에 있는 그 모습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큰 물체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축소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다섯 가지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나의 몸에 모두 주둔이 돼서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생각난다고 해서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거는 의식 속에서, 그 다섯 가지의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심봉이라는 선장은 바로 불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마는 그 선장은 바로 움죽거리지도 않으면서 중심에 끼워져 있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수레 중심에 끼워져 있는 그 중심축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 심봉은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부동한 것인데 바퀴가 모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수레라고 본다면 우리 부처님 자체, 근본이 바로 그 심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나 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되게 했다'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거 할 때에,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봤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다면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바로 아들이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인생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 공마저도 공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라는 이 자체가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없는 진화를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모습, 자기 차원이 주어지곤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고,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물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떡하다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배로 비유했고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모두 한 심봉의 선장으로다가 합쳐 주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 만물만생 중에 무정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뿌리 없이 사는 싹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영원한 자기 선장의 뿌리가 있는데도 그 선장을 믿지 않고 타의에서 자기 자신을 구한다면 백 년 만 년이 가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올바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